화학실험 (004): 이산화탄소의 헨리상수 결과보고서

제출일 2023.03.30

담당 교수님: 이은성 교수님 담당 조교: 백승현 조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강명석 (2024-10387)

실험개요

이 실험에서는 헤스의법칙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. NaOH(s)와 HC(aq)l의 반응을 두 가지 경로로 일으킨 다음, 어떤 경로를 취하든 총 엔탈피 변화는 같다는 것을 보인다. 또한 헤스의 법칙을 이용해 MgO의 생성엔탈피를 구하고, 실제 값과 비교한다.

실험1 Data & Result

0) 온도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

반응이 등압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, $q = \Delta H$ 가 성립하고, 열량계의 전체 비열 $C = \frac{q}{\Delta T}$ 이 므로, $\Delta H = C\Delta T$ 라고 할 수 있다. 이것에 물과 비커의 비열 용량을 알고 있으므로, 수용액의 질량을 w_1 , 비커의 질량을 w_2 라고 한다면 식에 근거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알 수 있다.

$$\Delta H = q = (4.18w_1 + 0.85w_2)\Delta T$$

1) *△H*₁측정

1M의 염산 100mL를 비커에 가하고, NaOH를 넣은 후 비커의 최고온도를 측정하였다. 반응전 측정한 비커질량, 반응이 일어난 후의 총 비커 질량, 칭량종이의 질량, 초기온도와 최고온도,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아래와 같다.

초기비커질량	99.8g	나중비커질량	205.62g	칭량종이질량	0.3g
초기온도	21.0°C	최고온도	40.5°C	NaOH질량	3.99g

온도변화가 19.5°C이므로, 반응에서 변화한 엔탈피는 9.88kJ임을 알 수 있다.

NaOH의 분자량은 40이므로, 이것은 NaOH 0.1mol이 반응했을 때의 엔탈피 변화이다. 이것을 고려해 아래 반응식의 엔탈피 변화량을 추측할 수 있다.

$$NaOH(s) + H^{+}(aq) + Cl^{-}(aq) \rightarrow Na^{+}(aq) + Cl^{-}(aq) + H_{2}O$$

 $\Delta H = -98.8 \text{kJ/mol}$

2) △H2측정

증류수 100mL를 비커에 가한 뒤 마찬가지로 NaOH 약 4g을 넣어 최고온도를 측정한다. 실험 1.1과 같은 물리량들을 측정해주었다.

초기비커질량	107.9g	나중비커질량	209.8g	칭량종이질량	0.14g
초기온도	19.5°C	최고온도	28.0°C	NaOH질량	4.03g

같은 식에 근거하여 엔탈피 변화량이 4.59kJ임을 알고, 이것은 NaOH 0.1mol과 반응했을 때의 엔탈피 변화이므로, 반응식의 엔탈피 변화량은 아래와 같다.

NaOH(s)
$$\rightarrow$$
Na⁺(aq)+OH⁻(aq)
 $\Delta H = -45.9$ kJ/mol

3) *△H*3측정

2M의 HCl 수용액 50mL과 2M NaOH 수용액 50mL을 한 데 섞은 뒤, 최고온도를 측정해주었다. 비커의 질량과 온도, 그리고 NaOH의 초기온도들을 측정해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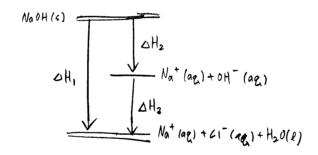
초기비커질량	113.5	나중비커질량	217.8		
초기온도	19.5°C	최고온도	32.0°C	NaOH온도	19.8°C

식에 근거해 엔탈피 변화량이 7.04kJ임을 알고, 이것은 마찬가지로 NaOH 0.1mol이 반응했을 때의 엔탈피 변화이므로, 반응식의 엔탈피 변화량은 아래와 같다.

$$Na^{+}(aq) + OH^{-}(aq) + H^{+}(aq) + Cl^{-}(aq) \rightarrow Na^{+}(aq) + Cl^{-}(aq) + H_{2}O$$

 $\Delta H = -70.4 \text{kJ/mol}$

4) 헤스의 법칙 확인



상단 그림과 같이, 반응 1은 반응 2와 반응 3을 합한 것과 같다. 반응 1의 엔탈피 변화는 몰당 -98.8kJ이고, 반응2와 반응 3의 엔탈피 변화는 몰당 -116.3kJ 이다. 두 반응이 서로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$$\Delta H_1 =$$
 -98.8kJ/mol
 $\Delta H_2 + \Delta H_3 =$ -116.3kJ/mol

실험2 Data & result

0) 온도변화에 따른 엔탈피 변화

같은 비커로 같은 열량계를 구성해주었기 때문에, 실험1과 마찬가지로 용액의 질량 w_1 과 비커의 질량 w_2 , 온도변화 ΔT 가 주어지면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를 알 수 있다.

$$\Delta H = q = (4.18w_1 + 0.85w_2)\Delta T$$

1) △H₁측정

1M HCl용액 100mL를 비커에 가한 뒤, 초기온도를 측정하고 Mg turning 0.60g을 용액에 넣어주었다. 비커의 초기질량, 반응이 일어난 뒤 총 비커 질량을 0.1g 단위로 측정하였다.

초기비커칠량	107.9g	나중비커질량	209.8g
초기온도	20.0°C	최고온도	42.0°C

식을 이용해 알아낸 엔탈피 변화량은 11.8kJ 이다. 이것이 Mg 0.6g, 0.025mol에 대응되는 양이 반응하여 나타난 것이므로,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은 아래와 같다.

$$Mg(s) + 2HCl(aq) \rightarrow MgCl_2(aq) + H_2(g)$$

$$\Delta H = +473kJ/mol$$

2) △H2측정

같은 과정을 반복한다. 다만, 이때 Mg 0.60g 대신 MgO 1.00g을 비커에 넣는다. MgO를 비커에 가할 때, 청량종이의 무게는 잰 다음 MgO와 함께 넣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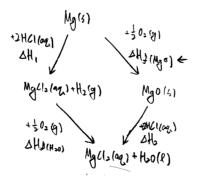
초기비커질량	99.8	나중비커질량	202.4	칭량종이	0.25g
초기온도	21.0°C	최고온도	26.0°C	MgO	1.00g

마찬가지로 같은 식을 이용해 알아낸 엔탈피 변화량은 2.52kJ이다. 이것이 MgO 0.025mol이 반응하여 나타난 것이므로,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을 결정할 수 있다.

$$MgO(s) + 2HCl(aq) \rightarrow MgCl_2(aq) + 2H_2O(l)$$

$$\Delta H = +100kJ/mol$$

3) MgO의 생성엔탈피 계산



두 엔탈피 변화량과 물의 생성엔탈피를 이용하여 MgO의 생성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다. 옆 그림을 참조하여 고체 MgO의 생성엔탈피를 계산한다. 생성엔탈피는 고체 Mg와 산소분자가 결합하여 MgO가 형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이다.

$$\Delta H_{f(MqO)} = \Delta H_1 + \Delta E_{f(H_2O)} - \Delta H_2 = +87 \text{kJ/mol}$$

Discussion

실험1에서 두 가지 경로의 총 엔탈피 변화 그리고 실험2에서 구한 MgO의 생성 엔탈피와 실제 생성엔탈피가 서로 유사한 값을 가지기는 했으나, 완벽히 같은 값을 가지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오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. 그 중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오차로는 열량계가 완전히 단열이 아닌 것이 있다. 열량계가 완벽하게 단열이지 않기 때문에, 반응에서 빠져나가는 열이 있을 것이고, 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. 또한 물질의 용해나, 반응의 완결을 온도계의 온도가 오르는지 여부로 판단했기 때문에, 반응이 완결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 또힌 주된 오차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. 이것들을 포함한 여러 오차가 종합되어 해당 오차가 발생했을 것이다.

Assignment 1

- a) 단계 1과 단계3에서, NaOH의 흡습성에 의한 오차가 발생한다.
- b) NaOH 고체는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해 녹아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. 이것은 질량을 측정할 때 흡수한 수분까지 질량에 포함되게 하여 오차를 만들고, 수산화나트륨이 사전에 용해되게 해 엔탈피 변화에 오차를 만든다.
- c)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비커를 저울 가까이에 둔 뒤, 수산화나트륨의 무게를 잰 직후 수산화나트륨을 비커에 넣어 그것이 공기중 수분과 접촉할 시간을 줄이는 것이 있다. 다른 방안으로는, 제습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.

Assignment 2

(1)

기체 탄소원자의 생성엔탈피와 결합에너지를 참조하여 각 화합물들의 생성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.

 C_2H_4 : (2*717 + 2*436) - (+682 + 4*427) = -84 J/mol CH_2O : (0.5*498 + 717 + 436) - (+732 + 2*427) = -180 J/mol

(2)

어떤 반응식의 반응엔탈피는, 생성물의 생성엔탈피 합에 반응물의 생성엔탈피의 합을 빼어구할 수 있다. 문제 1에서 두 탄소화합물의 생성엔탈피를 구했으므로, 이것에 근거해 반응A의 반응엔탈피를 계산할 수 있다.

반응엔탈피: ($2*H_{f,CH_2O}$ -350) - (H_{f,C_2H_4} + +143 + 0) = -799 J/mol

Reference

Peter Atkins, Loretta Jones, Leroy Laveman 『화학의 원리(제7판)』, 김관, 김병문, 이상엽, 정두수, 정영근, 자유아카데미, 2018 김희준, 『일반화학실험』, 자유아카데미, 2010, 103~111p

실험 랩노트

[421]

1) SH,

धामक्रम, ११.83

主712年: 21.0°C.

비기기간: 205.62g. 최고2도: 40.5.°C. 7328301: 0.39 NaoH2378: 03993

2) SH 2

H17/2/25 : 107.9g

主712至: 19.5°C

4/7/2/2/2:210.17g

到了是至:28.0°C.

記録され、0.14

6, Na 04 28: 4.03

3) OH3

비카건당: 113.5g.

रेगहरः 19.5℃ (He) धात्रायहाः २१७.8 व

到三是至:32.0℃

21.21-3

1

37184: 19.8°, (Naor)

[4/8/2]

1) SH.

비귀기2분, 10기, 9g.

₹7/25 20.0°C.

비귀리장, 209.83 최고원 소마. 42.0°C. delli

2) SH,

4/7/2/2h, 99.9g

37199 21.0°C.

山州262. 202.4g 主日256 26.0°C.

ilst 301: 0.25g

mo